

“여수산단 오염물질 배출 갈등 전남도가 나서야”

민관거버넌스 권고안 수용 요구에 기업들 불가 원칙 고수 여수상의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 등 적극 행동 필요” 촉구

여수상공회의소가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건 해결을 위한 지자체 등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여수상공회의소(회장 이용규)는 지난 10일 상공회의소 명의의 의견문을 통해 산단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이하 거버넌스)가 제시한 권고안을 놓고 거버넌스는 즉각 수용을 요구했지만 기업들은 절대 수용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

다고 밝혔다.
상의는 거버넌스와 기업 사이 장기화되고 있는 갈등 해결을 위해서 전남도가 나서야 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수상의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에 대한 영향평가 방식과 재발 방지 및 사후관리 방법

등 중대한 환경관리 종합대책 수립과정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역사회 구성원 간 상호불신 속에서 당사자들 간의 대화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사태의 근본적인 해법은 위반 기업의 진정성 있는 사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 등에 미친 실제적 영향 파악과 결과에 따른 사회적 책임이 순서지만, 양측의 갈등이 극심하면서 대화마저 단절되고 있는 상태다.
상의는 이에 따라 전남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측의 중재와 함께 지역민 및 위반기업 모두가 거부감 없는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전남도는 위반기업이 신뢰 회복을 위해 준비한 자구안에 대한 의견수렴 뿐만 아니라 민관협력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거버넌스위원의 개별 의견도 청취하고, 위반기업과 시민사회단체 간의 소통의 창구도 열어 적극적으로 돕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주민건강 역학조사 등 조사영역에 앞서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직접 발주해 조사 결과를 지역사회에 명확히 밝혀야 기업도 비용 부담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광양 배알도~망덕포구 해상보도교 6월 준공

광양시는 ‘배알도~망덕포구 해상보도교’ 상부가 성공적으로 가설돼 오는 6월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중점 관광명소 화사업’의 마지막 단계로 오는 6월 상부 포장, 경사로 계단 및 교량 난간 설치 등이 마무리되면 웅장한 보도교가 열린다.
길이 275m, 폭 3m 규모의 보도교는 전통적인 현수교 개념을 탈피하고, 국내 최초로 곡선 램프를 도입해 경관 조망을 확보하는 한편, 자유로운 선박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부공간을 확보했다.
해상보도교가 개통되면 배알도를 중심으로 근린공원과 망덕포구를 잇는 특별한 해상 로드가 펼쳐진다.
또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망덕산-배알도근린공원 쪼라인이 준공되면 배알도 일대는 액티비티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옥영 광양시 관광시설팀장은 “해상보도교가 개통되면 배알도를 플랫폼으로 망덕포구와 배알도가 연결되면서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매력적인 관광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8월까지 쪼라인을 성공적으로 개통하는 등 관광 인프라를 지속해서 구축해 관광수용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시·GS칼텍스, 올해도 취준생 ‘따뜻한 밥상’ 차린다

GS칼텍스 4000만원 기탁

여수시가 2017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취업준비생을 위한 중식 지원프로그램 ‘따뜻한 밥상’이 올해도 GS칼텍스와 함께 이어진다.
여수시에 따르면 GS칼텍스 김재오 노동조합위원장과 오문현 상무는 지난 10일 여수시청을 방문해 노사가 함께 모은 4000만 원을 취업준비생의 식사비로 써달라고 지정 기탁했다.
GS칼텍스는 2018년부터 매년 후원금을 늘렸으며 올해는 지정기탁금 4000만 원 포함해 총 1억3500만 원을 ‘따뜻한 밥상’ 지원사업에 후원했다.
여수시는 지정기탁금 4000만 원과 공동모금회 4300만 원을 더해 총 8300만 원의 사업비로 102명의 취업준비생에게 5000원 상당의 1일 1식이

나 월 10만원의 중식비를 12월까지 8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로 5년을 맞이하는 취준생 ‘따뜻한 밥상’ 지원사업은 청년실업이 역대 최고인 상황에서 시립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취준생에게 경제적 지원과 취업 성공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 더 의미가 깊다.
GS칼텍스 김재오 노동조합위원장은 “첫 사회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취업준비생의 힘든 길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청년의 성공을 위한 변함없는 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코로나19로 더욱더 취업난이 심해지고 취업의 길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취업준비생을 위해 든든한 후원자인 GS칼텍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다양한 청년정책과 양질



지난 10일 GS칼텍스 김재오(오른쪽) 노동조합위원장과 오문현(왼쪽) 상무가 권오봉 여수시장에게 노동조합과 회사가 함께 조성한 4000만원의 지정기탁금을 전달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의 일자리 창출로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에게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따뜻한 밥상”은 지난 2017년부터 여수시립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취업준비생 444명에게 3640식의 중식을 제공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순천 연향뜰 도시개발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순천 연향뜰 도시개발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남도가 지가상승을 노린 불법적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연향뜰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12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정지역은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으로 순천시 연향동, 해룡면 대안리 일원 0.48㎢(426필지)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공원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지정 기간은 2026년 5월 11일까지 5년간이다.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했다.
이에 따라 토지면적 100㎡를 초과해 거래하려면 계약 전 순천시장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해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에 맞게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금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임춘모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연향뜰 도시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전남지역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축제 취소로는 부족” 곡성 기차마을 입장객 총량제

곡성군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5월 장미가 만개한 섬진강기차마을에서 입장객 총량제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곡성군은 올해 5월 하순 개최할 예정이었던 곡성세계장미축제를 취소하기로 했지만, 장미가 만개해 관광객이 몰리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추가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입장객 총량제 기간에 섬진강기차마을 동시 입장객 수는 1만2000명 이하를 유지한다.
기차마을 내 입장객 수가 1만2000명을 넘으면 더는 매표를 진행하지 않고, 퇴장객이 발생하는 수만큼만 순차적으로 매표와 입장을 진행한다.
기차마을 내에 있는 각각의 시설도 전자출입명부를 작성과 함께 동시 입장객 수를 제한한다.
곡성군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말에는 포졸복장을 한 계도 요원들이 기차마을 곳곳을 순회하며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취식 중 대화 금지 등 방역수칙을 안내하도록 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kwangju.co.kr

순천시 ‘플로깅 캠페인’ 범시민운동 확산

봉사단 등 동천변서 첫 활동 시작
상반기 시범운영 후 참여단체 확대
순천시가 걷거나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쓰레기 담기 운동) 캠페인’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한다.
플로깅(plogging)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plocka upp)와 영어 단어(jogging)의 합성어다. 지난 2016년 스웨덴에서 시작해 북유럽을 중심으로 확산한 자원순환 실천운동으로, 국내에서도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 세대를 불문하고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추세다.
순천시는 지난 10일 여성단체협의회 회원과 라일락봉사단 회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천변에서 첫 플로깅 활동을 시작했다. 향후 구도심 동천변, 신도심 봉화산 둘레길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코스를 선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



여성단체협의회 회원과 라일락봉사단 회원 등 순천 봉사단체 회원들이 동천변에서 플로깅 활동으로 쓰레기를 줍고 있다. <순천시 제공>
이다.
상반기 시범 운영 후 효과를 분석해 하반기부터 참여 단체를 확대 모집하고 전 시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참여한 개인·단체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실적 등록 및 하반기 청소 수공 표창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

www.yhbeco.co.kr